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45호

[학교체육, 숨구멍이 필요해]

‘체육없이 시작해 체육없이 끝나는’ 학교체육

박강수 한겨레 기자

2022.11.12(토)

체육시민연대

제7차 집행위원회 개최

[학생선수를 살리자]

운동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하루 배드... ‘양보다 질’ 과학적 훈련 인프라 절실

김세훈 경향신문 기자

[학생선수를 살리자 ②]

맞춤형 학습, 대입요강 변경이 답이다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2022 서울림운동회

장애 비장애 학생-교사의 행복한 추억쌓기, 감동의 서울림운동회

김진희, 김가을 스포츠조선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노동자 인권 문제 등 안팎잡음 계속.. 보이콧 움직임도

이서은 스포츠투데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 없이 시작해 체육 없이 끝나는’ 학교체육

한겨레
박강수 기자

2022.11.11

■ 학교체육 기획, 발상의 대전환 계기 돼야

김창금=이번 기획 시리즈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조미혜= 현직 체육 선생님들의 사례부터 구조적인 어려움, 전문가 인터뷰까지 발로 뛰면서 취재한 덕에 학교체육 전반에 걸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볼 계기가 됐다. 문제점은 많지만 하소연하고 한탄하다 끝나서는 안 된다. 더 전략적이고 기술적이고 정치적으로 파고들어서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체육활동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김기철=전문적이고 수준높은 현안들을 시의성 있게 잘 다뤘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 스포츠클럽** 정책 이후 우리나라에서 체육 교육을 선도할 만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이번 기사를 계기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색됐으면 한다.

임성철=현장에서 21년차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숨막히는 일이 많았다. 기사에 나온 많은 내용들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보도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변할까라는 생각도 든다. 매번 변화에 대한 희망과 변함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 약골이 되어 가는 아이들, 방관하는 국가

김창금=초등 1~2학년 통합교과 체제로 체육의 공백이 있다. 본격적인 운동도 3~4학년부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치원부터 신체활동을 하는데 연관 고리가 빠지는 셈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어떤가.

차민철=현재 초등 1~2학년 통합교과는 넓은 의미에서 젓가락질이나 종이비행기 날리기도 신체활동으로 간주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이지만 건강 및 스포츠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제 중심으로 학습내용이 구성되다보니 놀이 주제와 관련된 적당한 이름을 붙여 활동이 편성되기도 한다. 주변의 교사들도 ‘즐거운 생활’ 주제에 맞춰 억지로 만들어진 활동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체육 교과를 두면서도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통합하려니 문제가 된다.

임성철=저는 중학교에서 4년, 고등학교에서 17년을 가르쳤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체육활동이 굉장히 부족하다. 방과 후에 여유가 있는 아이들만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턴 정식 체육 교육이 이뤄진다.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체육 활동을 안 하는 거다. 중학교 가면 다행히 시수도 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다시 줄어든다. 일주일에 1~2시간이다. 팬데믹 거치면서 학교 스포츠클럽은 거의 전멸 상태다.

김창금=학생들의 체육 능력도 떨어졌을 것 같다.

임성철=가슴을 칠 때가 많다. 고교 시절에 아이의 성장이 거의 완성되는데, 운동을 너무 못한다. 공을 던져도 투구 자세가 나오는 애들이 반에 몇 명 안 된다. 공을 제대로 차는 아이들도 별로 없다. 아주 기본적인 던지기, 차기, 받기 이런 동작들이 안 된다. 십수년 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의 체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팍스)를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된다. 아이들이 점점 신체적으로 바보가 되고 있는데, 나라는 이것 방치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가 맞나. 일부의 건강, 일부의 행복만 추구하는 국가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김기철=결국 문제는 초등 1~2학년과 고교 시절 양 극단의 체육활동이 너무 결핍돼 있다는 거다. 달리 보면 초·중·고 학교 교육이 ‘체육 없이 시작해서 체육 없이 끝나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중학교 때 시수를 늘린 것은 좋지만, 이 시기에만 체육교육을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다.

다음 장 계속

■ '팝스'가 드러낸 체육 불평등

김창금=국가가 팝스를 통해 초등 4학년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력을 평가하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체육활동과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의 체육활동 숨구멍은 막혀있다.

조미혜=팝스를 처음 시작할 때 문화체육부 자문위원으로 관여했다. 신체 능력 중심의 체력장에서 벗어난 맞춤형 체력 처방이 목적이었다. 당시 학교당 500만원 이상의 당시로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 인바디 등 측정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다.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예산 때문에 주저하는 정부 담당자와 만나 '미래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당 500만원은 그리 큰 비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국가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체육활동에 투자해야 한다.

임성철=팝스는 대부분 학교에서 자리가 잡혔다. 저는 3월~5월 기간에 팝스 측정을 위한 체력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한 뒤 팝스로 1차, 2차 평가를 해 아이들이 체육활동의 결과를 느끼도록 한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인바디 검사가 오픈되어 있다. 어플이랑 연계해서 운동과 생활 습관 형성까지 연계시키는 선생님들도 있다.

차민철=초등학교에서도 표면적으로 안착이 됐다. 다만 여전히 1~2학년 체육이 빠져 있다 보니 4학년 때부터 측정해보면 편차가 크다. 가정환경이나 주변 시설 등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운동을 해보지 못하고 3학년 때 처음 체력 운동을 접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격차가 드러난다. 체력 운동의 동기를 얻기 전에 좌절을 겪고,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신체활동을 피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 몸이 중요한 시대, 학교체육의 정당성

김창금=공교육이 **결정적 시기에 체육 단절**을 만드니 불평등 같은 악영향이 생긴다.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교육부 체육 담당 직원은 두 명이다. 말과 실천이 다른 것 아닌가?

김기철=교과목마다 시대별로 당위성과 정당성이 바뀐다. 요즘은 수학이 입시와 학업의 최정상에 있다. 체육은 역사가 오래된 과목이고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버텨왔다. 그런데 '이걸 왜 가르쳐야 할까'라는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대가 달라지면 경제나 성, 보건 등의 교육 분야가 부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체육은 항상 논리가 비슷하다. 우리 아이들의 신체 발달 정의를 넘어서는 설득력을 제시해야 한다.

조미혜=교육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서 체육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주당 시수가 3시간을 넘고, 스포츠클럽 활동도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체육시간이 없는 것은 큰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체육 교사가 열심히 하면, 학부모들이 학생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문제다.

■ 체육활동 소비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서야

김창금=생애 주기로 보면 어린 시절 체육활동 경험이 평생 이어진다.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과 개혁 요구는 분명하다. 그런데 왜 개선되지 않을까.

조미혜=80년대 중후반 통합교과가 굉장한 이슈였다. 선진국형 교육처럼 간주되어서 한번 정책 방향을 잡고 통합으로 가니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통합을 풀기가 어렵다. 이번에도 교육과정 개정의 분위기가 있었다. 저도 20년은 넘게 체육교과의 분리에 대해 말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진짜 목소리도 전달돼야 한다. 초등 교사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체육 수업하는 게 어렵다',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체육 시간에 다른 수업 한다'라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교육부 설문조사에선 '잘 되고 있다'로 답변하고, 교육부는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된다. 연구자들이 선생님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김기철=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초등 1~2학년 체육과 관련해, 현행 통합교과에서 체육을 분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음악, 미술을 같이 붙여 놓은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희박하다. '슬기로운 생활' 같은 다른 통합교과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09 교육과정 개정 초기 초등 1~2학년 체육과 교육과정 작업이 갑자기 중지됐던 경험이 있다. 초등 체육과 성장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최종 결정 단계에서 틀어진다. 아이들의 입장,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겠다.

조미혜=학교 운동부의 학생선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제도는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 선수들은 대부분 착하고 코치 말이면 순응한다. 코치나 감독들이 선수의 장래를 위해 '공부하라'는 등의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 시설 없이 체육활동 없다

김창금=시설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세월호 이후 생존수영이 강조됐지만 현장에서 수영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개선책은 없는가?

차민철=수영교육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고, 필요하다. 또 아직은 과도기여서 문제가 있다. 교사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데 사설 시간 강사에 많이 의존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인프라나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 시기에 학생들이 몰려 겨울에 하는 일도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기철=시설 없이 체육활동은 없다. 수영 교육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수영장이 부족하다. 이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미래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당국에서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학교 기자재나 용품 등을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운동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하루가 빠듯’ ... ‘양보다 질’ 과학적 훈련 위한 인프라 절실

학생 선수들은 바쁘고 쪼들린다. 운동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한다. 자기 꿈은 전문 선수가 되는 것이지만 학교와 교육부는 학습만 강조한다. 학교와 교육부는 운동 방법과 인프라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학생 선수들은 학교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운동도,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훈련법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출석 인정 일수도 해마다 준다. 학습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규 수업 이수도 필수다. 정현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훈련량이 아니라 질”이라며 “경험에 의존하는 코칭법에서 벗어나 심리학, 생리학, 역학 등에 기반한 과학적 훈련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학교까지는 기본 교육과정이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진로 중심 선택과정”이라며 “학생 선수의 효율적 운동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적 훈련법을 지도자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장소, 시설, 대회 방식 등에서 제약이 많다. 교육당국, 경기단체, 체육회,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학생 선수 육성을 맡기려 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스포츠클럽에서는 오랜 훈련과 합숙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스포츠클럽 학생 선수 관리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걱정했다.

■경기단체가 주도해야 한다

과학적 훈련법은 경기단체가 이끌어야 한다. 지도자가 과학적 훈련법을 배워야 좋은 재목을 육성할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스포츠 특화 대학, 경기단체 등이 지도자 교육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지도자 단체들이 몇 있다. 대부분 지도자 역량 강화와 교육보다는 노동조합 성격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데 머물고 있다. 경기단체가 유소년 시절 연령대별 교육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대회 운영도 이에 맞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윤종석 장훈고 축구부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낼지 지도 방향을 잡고 정책을 내려야 한다”며 “대학 입학에 맞춰 운영되는 대회 방식도 학생 선수들이 전 연령에 걸쳐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저학년 리그와 저학년 대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없는 과학적 훈련은 불가능

학생 선수들은 전문 선수를 꿈꾸는 재목이다. 윤 감독은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성인 위주로 대관되는 공공시설도 학생 선수에게 우선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철 운산고 체육교사는 “낙후된 교내 시설을 개·보수해서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운동부 있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대학 시설을 고교 학생 선수들에게 빌려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문 시설 건립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유지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관내에 다양한 종목의 학생 선수들이 날씨, 시간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을 지어주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현우 연구위원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지원해 지방에 공공체육시설을 짓고 있다”며 “재원을 더 확보해 전문 선수용 시설 신축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선수를 살리자] 맞춤형 학습, 대입요강 변경이 답이다.

학생 선수는 전문 선수를 꿈꾸는 '학생'이다. 그래서 공부도 물론 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는 학습 당위성만 요구할 뿐 해결책에는 무관심하다. 정규수업에 운동부를 넣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교육자도 많다. 학습 효과는 생활과 연관될 때 높아진다. 학생 선수들에게 학습에 대한 내적, 외적 동기를 교육계가 부여해야 한다.

■ 단기 체육특성화, 장기 맞춤형 수업 = 체육특성화과정은 체육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을 한 개 반으로 묶어 운영하는 학급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특성화 학급 내신 성적은 학급 안에서만 집계된다. 송곡고 유신 체육교사는 "학생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특성화 학급에 들어가면 학습 태도가 달라진다"며 "지금도 운동부를 운영하는 적잖은 고교들이 체육특성화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진로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학급별 내신 산정이 불가능해 체육특성화 학급을 운영하는 의미가 약해진다. 광문고 이현우 체육교사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학생선수 수업과정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교육부 방침에 넣어야 한다"며 "진로에 맞춘 수준별, 맞춤형 학습만이 학습 반감을 줄이고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중시절 학습 습관이 먼저 =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중학교까지는 학생 선수도 학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수업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현우 교사는 "초중 시절부터 학업 습관을 갖지 않으면 고교 정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학생 운동부를 학교에서 떼어내려 하고 있다. 정현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운동부를 학교에서 떼어내면 학습은 더 어려워진다"며 "학생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나올 경우, 학교와 클럽 모두 학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클럽에서 운동하는 학생 선수 학습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지침을 교육부, 문체부 등이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정 연구위원은 "학생 선수들도 공부를 해야만 과학적 지도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되거나 다른 진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학입시 요강 변경이 관건 = 출석허용일수 조정 등으로는 학생 선수 학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초중 시절 철저한 기본 학습, 고교 맞춤형 수업이 필요하다. 대학이 입시요강에 학습 능력 반영률을 높이면 단번에 해결된다. 천항욱 배명고 체육교사는 "대학이 최저학력제 하한을 높였다지만 실제로는 웬만한 학생선수라면 맞출 수 있다"며 "게다가 입시에서 실제 내신 반영률은 1~2%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허들을 낮추면 학생이 많이 몰린다. 대학은 부족한 신입생을 충당하고 체육대학 경쟁률도 높일 수 있다.

학습 시간 확보를 위해 대입에 경기실적이 반영되는 대회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현우 연구위원은 "대회가 너무 많으니 학생선수들이 대회 출전에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며 "교육부와 문체부가 경기실적이 반영되는 권위있는 대회를 추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 비장애 학생-교사의 행복한 추억쌓기, 감동의 서울림운동회

"그냥 친구죠."

장애-비장애 학생들의 눈에선 서로의 '다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운동하는 '벗'이었다. 장애의 벽을 허물고, 서울에서 숲처럼 어우러질 '모두의 운동회', 장애학생체육페스티벌 '2022 서울림 운동회'의 풍경이었다.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서울 하늘 아래 '하나'가 됐다. 지난 5일 서울 잠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선 '장애학생체육페스티벌 2022 서울림운동회(주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조선/후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협찬 SK텔레콤, 힐라코리아, 엘로엘, 코웨이, 릴리어스, 노이펠리체, 스포파크, SK나이츠, FC서울, LG트윈스)가 펼쳐졌다.

'여기, 지금, 우리 함께-Breaking Down Barriers(장벽을 허물며)'를 슬로건 삼은 서울림운동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도한 '통합체육' 운동회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 동행과 공존, 통합의 의미를 되새긴 '서울림 운동회'엔 서울시 관내 20개 중학교에서 총 179명의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참여했다.

지난 5개월간 교내 서울림 통합스포츠클럽에서 4개의 정식종목(농구 골밀 슛 릴레이, 빅발리볼, 스테킹 릴레이, 단체줄넘기) 중 2개를 택해 손발을 맞춰온 20개교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화합종목(큰공굴리기, 빈백농구, 단체릴레이 등), '드림패럴림픽' 체험종목(보치아, 쇼다운, 휠체어배드민턴 등)도 함께 즐겼다.

화합종목으로 몸을 푼 학생들은 순위를 정하는 정식종목에 돌입하자 눈빛이 달라졌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이내 티셔츠를 흠뻑 적실 정도였다. '마의 종목'은 단체줄넘기(6명)였다. 2명이 줄을 돌리고, 4명이 뛰는 종목에서 1분씩 2차례 기회가 주어졌는데 체력이 고갈된 학생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러나 문제 없었다. 힘들어 넘어져도 나머지 학생들이 "괜찮아. 다시 하자"를 외치며 친구들을 일으켰다. 체력이 다한 학생도 친구들과 교사들의 응원에 입술을 깨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의 명언이 '서울림' 코트 위에 나부꼈다.

또 다른 감동은 '스테킹 릴레이'에서 피어났다. 특수제작된 큰 컵을 빠르게 3단계로 쌓아올린 뒤 반환점을 돌아 다시 포개는 종목에서 한 장애 학생은 스피드보다 정교함에 초점을 맞췄다. 순위 싸움을 위해선 "빨리!"를 외쳐야 하는 상황. 그러나 아무도 "빨리!"라는 단어를 내뱉지 않았다. 오히려 "늦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마"라며 박수를 보냈다. 결국 이 장애 학생은 끝까지 자신의 몫을 다하는 집념을 보였다.

지난 4~5개월의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뽐낸 학교도 있었다. 방원중학교였다. 방원중은 농구 릴레이와 스테킹 릴레이에서 2관왕에 올랐다. '30대 여교사 짝꿍' 김련구 방원중 특수교사와 김예나 체육교사는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서울림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밝아졌다. 주도적으로 변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련구 특수교사는 "비장애 학생들이 농구를 못하는 저를 대신해 장애 학생들에게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더라. 천천히 발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체줄넘기 고등부 1위를 차지한 문정고 이하림 특수교사는 "서울림운동회를 준비하면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더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신났다"고 귀땀했다. 스테킹 릴레이 고등부 1위를 한 효문고 조철웅군은 "고3이라 현장실습을 다녀와 연습시간이 3주밖에 없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면 '함께'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웃었다.

함께 달리다보니 어느새 장애-비장애학생들은 격의 없는 친구가 됐다. 동명여고 김이안양은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얘기를 많이 했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줬다.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없이 달렸다"고 말했다.

'환한 웃음'으로 시작해 '뿌듯함'으로 마무리된 운동회. 선생님도 아이들도 함께 웃었다. '2관왕' 방원중 김련구 특수교사의 한마디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1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설레고 신나고 진심으로 행복해 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결과야 어쨌든 과정이 즐거웠으니 '우린 이미 최고'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결과까지 좋아 정말 날아갈 듯 기쁘다. 앞으로 교직 생활 내내 추억할 멋진 일이 생겼다. 서울림운동회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어울림으로 다가왔다."

카타르 월드컵, 노동자 인권 문제 등 안팎 잡음 계속... 보이콧 움직임도

전세계 국가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월드컵이 축구가 아닌 다른 문제로 시끄럽다. 중동에서 치르는 첫 월드컵인 카타르 월드컵은 처음 개최지로 선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입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개막을 앞뒀으나,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카타르 월드컵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인구가 300만 명도 채 안되는 작은 도시국가인 카타르는 2010년 개최지로 선정된 후 월드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카타르로 향한 이주 노동자들이 월드컵 경기장과 공항, 도로, 지하철 건설에 투입됐다. 이같은 인프라 구축에 약 2200억 달러(약 290조 원)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모됐다. 이는 2018 월드컵 개최국인 러시아가 지출한 비용(116억 달러)이나 2014 월드컵 개최국인 브라질이 지출한 비용(15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엄청난 인프라를 짓던 카타르는 이내 '이주 노동자들의 피로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휴먼라이트워치(HRW),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주 60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에 시달려왔다고 전했다.

카타르는 2014년 칼리파 국제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 착취 논란이 제기된 후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노동시간 제한, 분쟁해결위원회 설립, 임금 지급 보장, 출국 허가제(고용주가 이주노동자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폐지 등 개혁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제 앰네스티는 48쪽에 이르는 카타르 월드컵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노동 개혁이 다수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임금 체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국 가디언은 자체 조사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건설을 위해 노동하던 중 사망한 노동자 수만 67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 관광객 숙박지역 인근 아파트에 머물던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을 강제로 쫓아냈다는 일도 알려졌다. 그러나 카타르는 이미 2020년 이후 17개국 3만60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1억6400만 달러(약 235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3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카타르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성소수자 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어지자 카타르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소수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 월드컵 개막을 눈앞에 둔 지금, 인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보이콧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제 사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먼저 호주는 카타르 월드컵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카타르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을 국가대표 유니폼으로 입는 덴마크는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를 애도하는 검은색 유니폼을 마련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선수들은 카타르의 성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무지개 완장을 차고, 유럽 8개국 대표팀은 각국 주장이 경기 중 하트 모양 완장을 차는 방식으로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차별 금지 캠페인에 참여한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스트라스부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타르 월드컵 거리 중계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에 FIFA는 지난 4일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에 "축구는 이념적·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카타르 월드컵의 인권 침해 의혹을 묻어두려는 서한을 보냈다.

FIFA의 입장이 나오자 이번에는 유럽 10개 팀 축구협회가 즉각 반발 입장을 냈다. 잉글랜드축구협회에 따르면 잉글랜드,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유럽 10개 팀 축구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카타르가 자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개선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보상 기금 마련과 이주노동자센터 설립을 위해 FIFA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미축구연맹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냈다. 연맹은 "축구계에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다"며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는 정치적, 이념적 논란·대립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 호주 등 서방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자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치러지는 카타르 월드컵은 축구사에 이미 특별한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월드컵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번졌고, 개막 직전까지 서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축구가 아닌 그 너머의 문제로 발생한 잡음은 카타르 월드컵을 보게 될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길 듯 하다.

주간 스포츠 소식

FIFA "덴마크, 인권 메시지가 담긴 훈련복 착용 안된다"

<http://ngonews.kr/136752>

수원시체육회, '찾아가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해 체육복지 확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5987>

광주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청렴 및 폭력예방' 역량강화교육 실시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06132>

김아랑·황대현,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 대회 출전

<https://isplus.com/2022/11/09/sports/sportsgeneral/20221109162531072.html>

총암고 운영철, 대선 고교 최동원상 수상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9_0002079975&cID=10502&pID=10500

[2022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풋살인들의 뜨거운 열정, 청양 공설운동장 달궜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1113010003947>

한국거래소, 부산지역 초중고 체육선수들에게 장학금 후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08001095>

KBO, 소년원·아동 시설 티볼 지원...은퇴 선수들 재능 기부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0049600007?input=1195m>

아르피나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참가 단체 모집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948>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